

수능 지진 매뉴얼 명확치 않아 혼선 우려

3단계 대처방안 기준 모호...광주·전남 수험생·학부모 불안 진동 크면 운동장 대피...시험 재개 대기 시간 규정도 없어 감독관·교장 부담 속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줘야"

오는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 당일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 당국의 대처방안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여진 발생 시 학생대피 등은 교사인 시험감독관이나 교장인 시험장이 '1차 결정권자'라고 밝히면서 시험 감독관으로 나선 교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선 지진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육청은 이날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 등이 담긴 매뉴얼을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전달했다.

이 매뉴얼을 보면 수능 도중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응은 가·나·다까지 3단계로 나뉘어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러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다.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교사인 시험감독관, 개별 교사장 책임자(시험장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게 시·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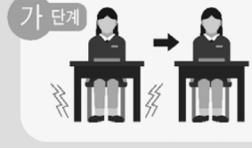
하지만 이 매뉴얼을 따랐다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대책이 허술하다 보니 '지진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최모(49·광주시 광산구)씨는 "막막하다. 교육청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학부모라고 별다른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아이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지진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우선 이 3단계 대처방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현장 감독관별로 상황에 대한 개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이 진동이 느껴졌을 때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시험을 중단시키고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수험생은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 및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함

나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1 시험 일시 중지 → 2 책상 아래로 대피 → 3 상황 확인 → 4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 원칙

※ '나' 단계에 해당할지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경우에는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음

다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1 시험 일시 중지 → 2 책상 아래로 대피 → 3 상황 확인 → 4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

※ '다' 단계에 해당할지라도 시험장 및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

자료/교육부 연암뉴스

김재철 한국교육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진이 몇 차례나 이어질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도 명확하지 않다. 또 약한 지진 발생 시 시험 재개 여부 판단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도중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국가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하는데, 올해 수능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교육부 방침대로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한 내용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세월호 내년 3월까지 세워 추가 수색·침몰원인 규명 선체조사위, 정부와 협의

목포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세운 뒤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선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추가 수색과 조사를 위한 선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선조위는 지난달 27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조위 목포사무소에서 제11차 전원 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직접 추진'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직접 방식은 목포신항에 거처 된 세월호를 해상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그대로 들어 올려 세우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조위는 누워있는 세월호의 구조와 안전성 점검하기 힘든 곳으로 알려진 남은 공간의 수색도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질 경우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조위는 선체 직접 작업에 총 6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세월호 선체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선조위는 지난 7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인 선조위 활동기간도 4개월 연장됨에 따라 내년 5월 6일까지 세월호 추가



20일 미수습자 가족이 떠난 목포신항에 세월호만 덩그러니 거치돼 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모두 떠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의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수색과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예정 대로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지난 18일 목포신항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나기 전 강력하게 주장한 진도 맹골수도구간부터 잭킹바지선을 이용해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한 구간에 대해 수

중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이 구간은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 된 과정에서 그동안 찾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선조위도 수중수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곳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체 작업일정과 변경사항은 없다"면서 "미수습자 가족과 선조위에서 요구한 인양구간 수색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암매장 발굴 언제쯤...

옛 광주교도소 1구간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 2~3구간 조사 계획대로 문화재 발굴 방식 추진

가장 유력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로 지목됐던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부지 1구간 발굴 조사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교도소 북쪽 담장 1구간을 정밀 조사했던 배관이 발견되는 등 과거 굴착 사실만 확인됐다.

5·18재단은 3공수여단 김모 소령이 지난 1995년 검찰 진술조서에서 제출한 '암매장 약도'를 바탕으로 교도소 북쪽 담장 밖 순찰로 117m 구간을 40m씩 3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했다.

애초 1구간은 길이 40m·폭 3m 규모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하 20~100cm 지점에서 공사 이력을 모르는 배관 8개가 발견돼 폭을 담장 쪽으로 2.5m 더 넓혀 조사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추가 조사지점 지하 50~60cm 지점에서 배관이 또 발견되며 과거에 땅을 팠던 흔적이 드러났다.

1구간 발굴에서 성과가 없자 계엄군이 5·18 이후 다시 광주에 내려와 매장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남마을에 주둔했던 11공수여단 소

속 김효겸 하사는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5·18 이후 62 대대장 인솔 하에 일부 병사들이 보병복장을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7공수여단 소속 군의관도 증언집에서 "참모회의에서는 뒤에 얻어맞은 부분이 암매장한 장소니까 지금 신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1구간 결과와 상관없이 나머지 각각 길이 40m와 37m인 2~3구간은 계획대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2~3구간은 배관 깊어지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고 시신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깊이 1.5m까지는 호미, 삽 등을 이용한 문화재 발굴 방식으로 조사한다.

또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신순용 전 소령과 3공수 본부대대 유보 병장들의 제보와 최근 발견된 검찰 기록에 나온 공동묘지 내용을 종합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5일부터 이틀간 교도소 부지와 너트재 도로 등에 투입된 땅속탐사레이더 결과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초등교사가 엠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법원, 징역 3년 선고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 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을 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애플

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체구가 또래보다 특별히 큰 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비슷한 시기 신씨와 같은 방법으로 A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19·대학생)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연암뉴스

"농작물 말리는 공터에 주차 왜 해" 돌맹이로 차량 4대 파손



○...평소 농작물을 말리는 장소로 애용해 온 집 앞 공터에 주차를 했다며 돌맹이 등으로 차량을 파손한 70대 할머니가 경찰서행.

○...2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고모(여·79)씨는 지난 2일부터 9일 사이 오전 8~9시에 광주시 남구 지식동의 한 공터에 세워진 강모(76)씨 소유 1.5t 화물차 등 차량 4대의 유리창을 돌맹이로

파손하는 등 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고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집 앞 공터에 공과 고추를 말리려고 아침 일찍 나가신데, 최근 주차 때문에 작물을 말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면서 "뜻대로 농작물을 말리지 못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러신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7994	1	서구 상무누리로33, 107동 11층 1103호 [아파트]		557,000,000	
	1	치평동, 갤러리303) 175.44㎡		557,000,000	
2017타경 12545	1	서구 영화로57번길19, 203동 10층 1010호 [아파트]		128,000,000	
		59.26㎡		128,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7타경 12453	1	동구 계림동 238-23 105㎡	대	80,795,500	일괄매각, 제시외
	1	동구 중앙로290번길 14-12 1층53.19㎡ 2층 39.27㎡ 부속건물 면적소.81㎡ 제시외 보일리실 1.4㎡	단독주택	80,795,500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4384	1	남구 진월동 245-3 397㎡	전	16,980,000	일괄매각, 경계구
	2	동소 245-5 169㎡ [울건번호1:목록1,3현황 대부분임야(매수시원상회복의우가능성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6,980,000	분야별명하여정확한부분은측량요
		2	동소 245-4 674㎡ [일부공원지속]	전	39,627,000
		동소 245-7 251㎡	전	39,627,000	분야별명하여정확한부분은측량요,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0631	1	곡성군 겸면 칠봉리 산32 21025㎡ [면적소	임야	73,587,500	일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642 863㎡	답	73,587,500	일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61523	1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346 2241㎡	전	59,16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64232	1	광산구 고흥동 산68-2 1213㎡ [지적결계불 확실하므로정확한경계확인은측량요]	임야	21,955,300	면적소, 면적소
2017타경 64447	1	영광군 묘향면 상호리 468-4 1418㎡	답	55,859,200	일괄매각, 농지취
		동소 468-5 1364㎡	답	55,859,200	득자격증명요
		동소 468-6 1582㎡	답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7타경 9792	1	서구 시청로13, 7층 728호 [차평동, 상무리	근린시설	87,000,000	2017.7월현재잔금
		채2] 22,9649㎡		87,000,000	비227,270원미납
[기타]					
2017타경 6632	1	북구 중흥동 140-2 94㎡	대	103,899,560	일괄매각, 제시외
	1	북구 당포로 57 1층54.57㎡ 2층48.29㎡ 부속건물 면적소.1㎡ 제시외 창고 등 31.3㎡	창포, 주택	103,899,560	건물포함
2017타경 9471	1	북구 신안동 423-2 23㎡ [주택8평9층건물등	창종지	10,073,580	일괄매각, 범행특
	1	동소 423-10 62㎡	도로	10,073,580	지분1/9전부, 지분
		동소 423-20 30㎡	도로		매각, 공유차우선
		북구 운암동 28-1 40㎡ [현황도로]	전		매수권행사1회로
		북구 문정동 산117 5648㎡	임야		제한, 목록5분소
					채, 임의목적매각

● 고건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될 때 매수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농지법상 인시(인양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금 그 일부 또는 일부가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차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12. 5.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12. 1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면 기밀성,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밀하고 낙찰되어 보증금을 통해 입찰비용에 대해 입찰비용을 반환하는 것이다. (매수보증금의 1%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개의 자기자금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급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비용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반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목록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최우선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엔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지 10일 이내에 대금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을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이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분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투표특별명보증을 가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각허가 및 대금 납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적권은 부동산이 경매자의 청구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참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분과 들어 설정된 날로부터 현재 주된등락전신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외자등이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유익법인 민사조정(선정)과에서 전자문서(매수)로 비치한 출력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비용의 납입은 대금납부후에 입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결과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명세서의 내용에 불응하거나 선분봉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청문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후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도 결정일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행계약확정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판매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합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선분에 매각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추경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법정명령에 출력되어져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결과 선택

⑩ 법원명 출찰처에서 공고내역의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만, 다른 국외의 경우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게시물을 첨부하고, 국외소재국별명보증을 가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각허가 신청이나 하고, 대금결제신청이나 손해배상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공상되는 물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